



VACHERON CONSTANTIN
GENÈVE

바쉐론 콘스탄틴이 “Less’ential”이라는
올해의 테마 아래 신제품을 소개합니다.

2023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신라 호텔 영빈관

소개

WATCHES & WONDERS 2023
NOVELTIES

바쉐론 콘스탄틴이 “Less’ential”이라는 올해의 테마 아래 신제품을 소개합니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 Watches & Wonders 2023에서 공개된 신제품의 국내 최초 프레젠테이션
- 절제된 미학의 가치를 통해 본질에 집중하는 메종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Less’ential”
- 심플함은 세련미로 거듭나고, 절제미는 탁월한 기교로 여겨지며, 순수한 디자인은 디테일 하나하나에 깃든 섬세함을 드러내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타임피스

2023년 7월 13일 - 15일, 신라호텔 영빈관 - Watches & Wonders 2023에서 공개된 신제품의 국내 최초 프레젠테이션부터, 올해의 테마 Less’ential과 지난 270여 년 간 개척해 온 정교한 기술력에 경의를 표하는 마스터라인 타임피스까지 풍성한 셀렉션을 선보였습니다. 디테일에 대한 세심함을 드러내는 순수한 디자인과 타임피스를 통해 드러낸 미학적 각인과 미니멀리즘 뿐만 아니라, « 가능하면 더 잘하라, 그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는 굳건한 신념에 담긴 바쉐론 콘스탄틴의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소개

WATCHES & WONDERS 2023
NOVELTIES

바쉐론 콘스탄틴이 “Less’ential”이라는 올해의 테마 아래 신제품을 소개합니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한옥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영빈관이 바쉐론 콘스탄틴만을 위한 장소로 변모하며, 낮에는 운치 있는 여름날의 정경을 담고 밤에는 화려한 조명이 더해진 색다른 모습으로 고객과 프레스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신제품에 하이라이트를 더하는 전시 공간에는 절제된 미학의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본질에 집중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워치 메이킹 접근 방식으로 제작된 타임피스들을 전시, 각각의 타임피스에 담긴 미학적 각인, 아이코닉한 라인 그리고 송고한 텍스처와 소재를 통해 메종이 추구해 온 미니멀하면서도 독창성을 나타내는 “Less’ential”을 소개했습니다. 맞은편으로는 시계의 중심에 서 있는 것만 같은 웅장한 원근감을 느낄 수 있는 몰입형 사운드 경험을 통해 워치 메이킹 장인이 구현한 본질적인 조화를 발견하고 또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하여 “워치 메이킹 심포니”를 청음 하는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별도로 마련된 라운지 공간에서 신제품과 더불어 하이 컴플리케이션과 젤세팅 등 진귀한 타임피스를 직접 착용해 볼 수 있었으며, 시계를 착용하고 있는 손목이 더욱 돋보이도록 특별하게 제작된 포토 머신으로 바로 촬영하고 사진을 소장 및 공유할 수 있는 색다른 재미와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 밤을 위해 따로 마련된 파티에서는 다채로운 칵테일과 DJ 퍼포먼스와 더불어, 최근 새로운 앨범을 발표한 빈지노(Beenzino)의 축하 공연으로 뜨거운 열기를 더하며 화려하면서도 새로운 무드를 더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이 “Less’ential”이라는 올해의 테마 아래 신제품을 소개합니다.

Watches & Wonders 2023 Novelties

Watches & Wonders 2023에서 공개된 신제품들을 통해 바쉐론 콘스탄틴의 워치메이킹은 꼭 필요한 요소에만 집중하며, “Less is more”의 바우하우스 원칙에 충실함을 증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심플함은 세련미로 거듭나고, 절제미는 탁월한 기교로 여겨지며, 순수한 디자인은 디테일 하나하나에 깃든 섬세함을 드러냅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방식으로 미니멀리즘을 표현함으로써 정교한 기술력이 살아 숨 쉬고, 아름답고 균형 잡힌 형태가 우아함을 자아내며, 소재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장인 기술이 타임피스를 통해 돋보입니다.



Traditionnelle 투르비옹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오픈페이스
(2023)

Patrimony 레트로그레이드 데이-데이트
(2023)

Overseas 문 페이즈 앤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2023)



VACHERON CONSTANTIN
GENÈVE

바쉐론 콘스탄틴이 “Less’ential”이라는 올해의 테마
아래 신제품을 소개합니다.

소개

WATCHES & WONDERS 2023
NOVELTIES

Traditionnelle 컬렉션의 제품에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디자인에서
투르비용의 복잡한 기술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를 볼 수 있으며, Overseas 컬렉션에서는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타임피스에 클래식한 컴플리케이션을 더해 우아한 품격과 독특한 매력을

자랑합니다. Patrimony 의 절제된 미학은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디스플레이로 긴장감과 곡선
사이의 완벽한 균형이 돋보이는 미니멀한 디자인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기술력, 정교한
기법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계는 오롯이 간결함에만
집중하는 ‘Less’ential’ 타임피스입니다.



Overseas 셀프 와인딩
(2023)

Traditionnelle 투르비용
(2023)

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되어 270년 가까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속해온 시계 제조사로, 여러 세대를 거쳐 숙련된 장인들을 통해 탁월한 워치메이킹의 유산과 세련된 양식의 정교한 시계 제조 기술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대표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창적인 기술, 미학적 완성도, 최상의 장인 정신과 마감 기법으로 품격 있는 타임피스를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보적인 전통과 혁신의 정신으로 고유의 가치를 이어오며, 패트리모니, 트래디셔널, 메티에 다르, 오버시즈, 피프티식스, 히스토릭 그리고 에제리 컬렉션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메종은 안목 높은 시계 애호가들에게 "캐비노티에"를 통해 특별한 주문 제작 시계뿐만 아니라, 레 컬렉셔너로 구성된 빈티지 타임피스를 경험할 수 있는 진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VacheronConstantin

#OneOfNotMany



VACHERON CONSTANTIN
GENÈVE

ONE OF
NOT MANY.

